



# BERITA MALAYSIA



2009년 5월 17일



제 4 호

RaonAtti

## 페낭의 야경은 정말 아름답다!



**지난** 5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 동안 다녀온 ‘페낭’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예상치 못한 교통 체증으로 인하여 예상 소요시간인 3시간 30분보다 한 시간 이상을 더 버스에서 보내야 했다. 하지만 페낭 섬으로 가는 페리에서 바라본 야경이 우리의 피곤함을 말끔히 씻어주었다.

둘째, 셋째 날에는 YMCA 스태프와 함께 본격적인 페낭 여행을 하였다. 쿠공시(Khoo Kongsi; Khoo 가문에서 자신의 가문을 위해 지은 절로 페낭에서 가장 big 일가의 절), 청페떼 맨션(Cheong Fatt Te Mansion), 왓 차이야 망갈라람(Wat Chaiya Mangkalam, 태국, 미얀마, 중국 건축 기술이 사용된 독특한 절, 33m의 와상 부처가 있다), 페낭 박물관, 스네이크 템플 (Snake Temple), 야시장(Pasar malam), 인디아 거리 등을 방문하면서 페낭의 역사,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페낭에서 살아온 스태프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곁들여져 더욱 의미가 있었다.

한국에서 전라도가 음식으로 유명하듯 말레이시아에서 페낭은 특색 있고 맛있는 지역 음식으로 유명한 지역이다. 중국, 말레이, 인디아 요리는 물론이거니와 뇨냐(Nyonya) 요리, 태국 요리 등 다른 지역에서 맛볼 수 없는 다양하고 맛있는 요리들을 모두 맛볼 수 있다. 우리 역시 스태프의 추천을 받아 페낭의 각종 지역 음식들을 맛보았는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페낭하면 먹을 거리를 떠올리는지 백 번 공감할 수 있었다.

더 오랜 시간 페낭에서 머무르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아쉬웠지만 다음에 다시 올 날을 기약하며 테룩 인탄으로 돌아가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서윤선



구공시에서 페낭 YMCA 스태프들과 함께



각국의 부처상과 스님들과 함께



페낭에서 맞이한 석가 탄신일 축제

# 'Activity'

## 준비 단계부터 함께한 큐티큐티 캠프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2박 3일 간 베다니 홈 학생들과 선생님들, 자원 봉사자들이 함께 하는 큐티큐티 캠프(cutie-cutie camp)가 카메론 하이랜드(Cameron Highland)에서 열릴 계획이다. 이러한 캠프는 일 년에 총 4번 열리는데 학생들이 외부 활동을 할 수 있고, 부모님과 떨어져 다른 사람과 함께 지낸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이번의 큐티큐티 캠프에는 약 40명의 학생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모(Mr.moe)의 책임 하에 총 9명의 선생님이 전담하여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주말(5월 16일~5월 17일)을 이용하여 모를 비롯한 6명의 선생님이 사전 답사를 위해 카메론 하이랜드를 찾았다. 이에 라온아띠 단원들은 그들과 함께 하며 어떻게 캠프가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 파악하는 기회를 가졌다.

준비단은 16일 오후 카메론 하이랜드에 도착하여 베다니 홈과 교류를 쌓고 있는 장애시설을 방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 곳의 학생들은 일반 가정집에서 함께 기숙하며 살고 있었고, 그 공간 안에서 교육과 직업 재활 훈련이 함께 이루어 지고 있었다. 이 곳은 베다니 홈과 같이 작은 공동체를 목표로 하고 있어서 그 전부터 교류를 해오고 있었다. 이번 큐티큐티 캠프를 준비하는데 있어서도 숙소를 마련 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 곳 원장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숙소를 방문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공간 및 물품을 파악하였다. 그 후 근처에 있는 정글 크래킹(jungle tracking) 코스를 방문하여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할 지에 대해서도 파악하였다.

17일에는 카메론 하이랜드에 있는 차 플랜테이션 농장과 딸기 농장, 나비 농장을 방문하여 학생들이 체험하기에 적합한 한 곳이 어딘지를 조사하였다. 또한, 사업주와 논의하여 캠프 당일 날 학생들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준비단과 함께한 김보영 단원은 “베다니 홈에서 중요하게 진행되는 캠프를 준비 단계에서부터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이 뿌듯하고, 큐티큐티 캠프가 베다니 홈에서의 마지막 일정인 만큼 잘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채해원

## 얼굴 비추기

